

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

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(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)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(목)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. 다만,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법무실	책임자	국 장	정은정 (02-3145-5910)
		담당자	팀 장	서현재 (02-3145-5912)
	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형순 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박진호 (02-3145-7060)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오동헌 (02-2100-2892)
	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홍수정 (02-2100-2801)
		담당자	사무관	유미리 (02-2100-2807)